



서울제일교회 증언 질 그 릿

2021.10.3.
세계성만찬주일
정원진 목사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다

¹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²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³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⁴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히 1:1-4)

히브리서 소개

창조절 다섯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일과’는 오늘부터 7주 동안 서신서 본문을 ‘히브리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7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키는 여러 특별한 주일들이 들어있어서, 즉 한일합동수양회(10.10), 교회개혁주일(10.31), 추수감사절(11.7)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한 증언을 들을 기회는 4번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월 14일 주일에는 장로·권사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오전 주일예배는 신연식 목사가, 오후 임직예배는 제가 증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를 증언할 기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단 3번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히브리서 첫 증언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히브리서를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편지’일까요? 신약성서 분류표에 따르면,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서신서’, 즉 ‘편지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히브리서는 일반적인 편지글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서의 첫 번째 문서이자 바울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살전 1:1) 이렇듯 당시의 편지글은 맨 처음에 ‘발신인’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수신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를 밝히고 인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난 주일까지의 본문이었던 ‘야고보서’도 사실은 서신서가 아니라 ‘권면집’(勸勉集)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장 2절 이하야 어쩔든지 간에, 적어도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라고 되어있어서, 최소한 편지글처럼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형식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13장 20~25절에 가서야 겨우 ‘축복과 작별인사’라는 편지형식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덧붙여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본문은 전혀 편지 투가 아니고, 내용도 설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서신서가 아니라 설교집(說敎集)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기에 어렵고 지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및 청중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한 설교일까요? 저자는 누구고, 청중은 또 누구일까요? 히브리서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교회 전통은 오랫동안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초대 교부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서 저자가 과연 누구인지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원문에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의 ‘히브리서’라는 문서 제목이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제어 역시 원본에는 들어있지 않았고, 나중에 2세기 말경에 신약성서의 정경을 결정하는 그 목록을 배치할 때 붙여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청중을 ‘히브리인들’, 달리 말하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히브리 말이 아닌 그리스 말로 기록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만 히브리서의 청중인 것도 아닙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도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는 ‘하나님 예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청중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요즘 학자들은 ‘히브리인에게’라는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왜? 신약성서는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새 계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새 이스라엘’ 또는 ‘히브리인’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설교라고 보면 되고, 넓게 보면 그 대상에는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서문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서문은 마치 오페라의 서곡처럼 앞으로 전개될 히브리서의 내용 전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이 담긴 히브리서의 장엄한 서문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과는 달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말씀하

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1:1-2a). 이렇듯 히브리서의 저자는 서문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그들과 통교(通交)하고-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계시와 통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역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유일한 방식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2b~4절은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역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의 상속자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 본질의 모상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좌정한 분이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진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만물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죄를 깨끗이 없애는 것 등입니다. 이 장엄한 서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들은 이 서문을 보충하는 설명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이라고 증언합니다.

스스로 제물(祭物)이 되신 예수

저는 오늘 ‘세계성만찬주일’을 맞아 히브리서가 말한 ‘희생 제물’에 초점을 맞추어 명상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 규정들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제사들 가운데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燔祭)는 제물을 몽땅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 중의 으뜸 제사였습니다. 번제물의 종류는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으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를 바치든지 그것은 흠 없는 것이라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번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태워버릴 것이라면 흠 있는 것이나, 병든 것 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서는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력과 힘이 넘치는 최상품을 예물로 골라 바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봉헌자의 정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번제의 극치를 발견합니다. 완전하고 흠 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자신을 몽땅 바치는 번제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번제가 유목민들이 바치는 최고의 제사 행위였다면, 농민들이 바치는 최고의 제사는 소제(素祭), 즉 곡식 제물입니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 까지 피땀 흘려 가꾼 알곡을 추수하여, 햇볕에 잘 말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빵아 가루로 만든 후 태워 바치는 제사가 소제, 곡식 제물입니다. 농사짓고, 추수하고, 말리고, 빵고 하는 것이 모두 제사 준비 과정이고, 그 과정들 하나하나에 농부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을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그 곡식 제물과 일치시킵니다.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모든 음식은 뜻 생명의 죽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생명이 가득한 곡물들이 가루가 되기까지 바수어지고, 그 가루들이 물과 섞여서 반죽 되고, 부풀려, 뜨거운 불에 구워지기까지 죽고 또 죽어야 다른 생명체에 생명을 주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 생명 양식의 신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여 싱싱한 생명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싱하지 못하여 상했거나, 썩은 것으로는 결코 생명을 주는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음식은 식중독을 일으켜 생명을 해칠 뿐입니다. 이것은 흠 없는 제물을 번제로 바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이야기와 십자가 죽음은 바로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가루로 바수어지는 과정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에서는 봉헌자가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했다면, 십자가 제사는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한 봉헌자 자신이 마침내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참성소’ 즉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9:24). 그래서 그는 영원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념하는 성만찬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선포할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책임입니다. 오늘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만찬을 거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취했으니,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다음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께서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며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이며
당신이 그분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은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져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
모셔 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인스턴트커피를 타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커피’고, 나는 ‘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그분을 받아들여 내 안에서 녹이려 합니다. 그러려면 물인 나는 당연히
깨끗한 생수이어야 하고, 커피를 녹이기 위한 내 마음은 늘 뜨겁게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커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잘 녹아서 커피 한
잔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더는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커피
라고 합니다. 진한 향을 내 뿜는 커피인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음
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냄새가 납니다. 마늘
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날 것이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날 것이
고,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은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 정상이겠지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커피라면 커피 향이 나와 할 것입니다. 커피 향
을 낸다는 것은 성녀 테레사의 말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눈
과 손과 발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향린 국악찬송을 보면 제가 미국유학 때 쓴 성만찬 찬송 가사가 있습
니다. 그걸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증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와서 떡을 나누자
너 위한 내 몸이니
와서 잔을 나누자
너 위한 보혈이니

함께 떡을 나눌 때
주와 나 한 몸 되고

우리 잔을 나눌 때
너와 나 하나 되네

이제 세상 향하여
주 본받아 나아가세
나 가진 것 나눌 때
주의 사랑 퍼지리

주가 희생했듯이
우리 서로 위할 때
주의 나라 이 땅에
누룩같이 퍼지리 아멘